

유암초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④ ... 영어회화

원어민과 함께하는 생활 영어 익히기

“유암초등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수업태도도 좋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유암초등학교(교장 송종길) 영어회화 원어민 강사 Andrea Brown(앤드리아 브라운)의 말이다.

앤드리아 강사는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발음교육을 집중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이나 동물의 이름을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하나하나 불러서 기억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다.

특히 앤드리아 강사는 “영어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민의 발음을 정확하게 따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는 목적인 바로 원어민의 발음에 주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노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습을 돕고 있기 때문에 유암초등학교 교육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앤드리아 강사는 유암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닉스’(교재명)를 구입하여 공부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좋은 영어공부 사이트가 많으며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원어민 발음에 주목해서 공부해야 한다



유암초등학교 영어회화반 원어민 강사인 Andrea Brown(앤드리아 브라운)이 수업하는 모습.

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면 좋겠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복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모두 암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리아 강사는 미국 플로리다 출신으로 부친이 군인으로 미국 각 지역에서 살면서 영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며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어 구사능력이 있으며 아이

오와주립대학을 졸업했다고 한다. 송종길 유암초등학교 교장은 “내일을 향한 꿈을 키워가면서 세계로 향한 영어공부를 확실히 교육시켜 앞서가는 선진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실현하여 농촌학교에서도 도시학교 못지 않은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태봉산에서 농촌풍경 바라봤어요”



송우초등학교와 수원 청명초등학교의 도·농 교류학습이 지난 14일 진행된 가운데 양 학교 학생들이 태봉산에 올라 농촌풍경을 감상했다.

송우초도·농교류학습 실시

송우초등학교(교장 강영숙)와 수원 청명초등학교(교장 김광환)의 도·농 교류학습이 지난 14일 포천 시 송우리 송우초등학교와 인근 태봉산에서 진행됐다.

송우초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도·농 교류학습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폭넓은 인적 교류를 통해 학교간의 정보 교환과 도시와 농촌간의 이질감 해소와 상호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송우초등학교 1학년 36명(담당 교사 김영란)과 수원 청명초

등학교 1학년 36명(담당 교사 송기동)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포천에서 홈스테이를 통한 1차 교류학습을 시작으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에서 홈스테이를 통한 2차 교류학습, 지난 14일에는 포천에서 당일 3차 교류학습이 진행됐다.

포천에서의 1차 교류학습은 급수정 등의 견학을 통한 농촌 문화탐방, 종리계곡, 한우목장, 유기농 논 견학 등 농촌 자연환경 탐방, 합동 수업 등으로 진행됐으며, 수원에서의 2차 교류학습은 도시문화체험으로 경기도의회, 월드컵경기장, 농촌진흥청, 수원 화성 등 견학이 실시됐다. 이번 3차 교류는 태봉산 등반을 통해 농촌의 풍경 감상 등 농촌의 자연환경탐방, 전통놀이 하기 및 운동 등 친교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교류학습은 오는 11월 4일 수원에서 마지막 교류학습 계획을 갖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추산초,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

소흘읍 송우리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삼선)는 지난 11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등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지정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학교 숲 가꾸기를 통한 친환경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추산초등학교의 환경교육 시범 내용은 학교 숲 가꾸기를 위한 여건 조성, 실천, 체험 중심의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보고회는 추산초등학교가 경기도지정 환경교육역역의 학교로 지정돼 지난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9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을 보고회 및 학교 숲 가꾸기 연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회 및 학교숲 가꾸기 연수는 개회식 및 보고회와 평강식물원 남기재 강사의 ‘생태학적 기법을 적용한 학교 조경’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제1,2,3분과로 나눠 학교 뒤 운동장의 자연학습원, 다목적실 등에서 난기르기, 수생식물과 환경에 대한 교육, 놀이와 학습이 공존하는 학교 숲 교육 등이 실시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윤종성의 마국어따라하기

경찰에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How long have you been served in the Police?
하우롱해부빈써터덜폴리스?

*한 달 후면 20년이 됩니다.
Another month will make twenty years.

애너더민스 웰메이트웨니여스.

6. (계산) : 6곱하기 3은 18입니다.

Six by three makes eighteen.
씩스바이쓰리 메이크스 에이틴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dlyoon@nate.com

교사 탐구

관인초등학교 환경부장 심은행

작은 학교에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아깝다며 “오직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히는 관인초등학교 환경부장 심은행(41·사진)교사를 만났다.

연천 공평초등학교, 청산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9월 철원 묘장초등학교에서 교직에 입문한 심 교사는 교사의 꿈을 갖도록 했던 선생님의 모습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북초등학교에서 큰 뜻 없이 맡았던 연극반이 심 교사의 교사생활의 많은 비중을 교육연극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도록 했다고 한다.

심 교사가 교육하는 연극에는 대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본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리하는게 대본이다. 대본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이 처음 대사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는 대사로 정착되어 간다. 결국 공연날에도 아이들의 대사는 무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의 창의력을 작품으로 승화

교육연극의 새장을 열어가는 교사

심 교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처음 시도했던 연극의 전체구도가 7번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며 내용도 70%이상은 변하게 된다.

“아이들을 봐야겠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끌어내주지”는 게 심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 그것을 끌어주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될 때 얼굴이 퍼지게 된다.

교육연극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며칠 전의 일이다. 반에서 학습부진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고양이와 쥐’라는 역할극을 하라고 제시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애들이 우리 생각에 보자”며 토론을 유도하는 모습을 접했을 때다.

평상시 습관처럼 말을 더듬고 다리를 흔드는 아이들이 무대에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연극을 추진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심 교사는 “교사는 교실 안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각종 잡무가 더욱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에 대해 심 교사는 “열정이 분산되는 게 아쉽다”며 “교실로 돌아가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밝혔다.

심 교사가 추진했던 ‘장군의 동상’ 연극따라 하기 수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일 완성 연극 따라하기 프로그램이다. 1일차는 공민작품 구상을 하고 연극부원의 자세 다지기와 작품을 구상한다. 2일차에는 배역을 선정하고 즉흥극을 15일차까지 14개 만들어 연습한다. 2일차부터 15일차까지 자제다지기, 발성·

발화연습에 나서고 신체표현놀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일차에는 공주고 받기와 학교 등교길의 풍경, 4일차는 거울놀이, 교실청소 활동, 교실청소 장면 연출, 5일차는 시낭송, 골짜기놀이, 모퉁 조각품 만들기, 위인전을 읽고 즉흥극 꾸미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 극 만들기, 6일차 나만의 조각품 만들기, 교실에서 있는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 표현하기, 승화 이야기 극 만들기, 7일차에는 명확한 발음 훈련과 결승 가정의 아픔 즉흥극 꾸미기, 승화의 가정생활 극으로 만들기, 8일차는 밤의 비밀 즉흥극 꾸미기, 밤의 비밀 극 만들기, 9일차 몸동작으로 자기 소개하기, 승화와 장군의 만남 극 만들기, 10일차 줄놀이 이용 사물 표현하기, 연극부 교실 이야기 꾸미기, 다양한 연극 놀이 극화하기, 11일차는 정지그림 만들기, 승화의 변화된 이야기 꾸미기, 승화의 변화극 만들기, 12일차는 이야기 정지그림 만들기, 승화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이야기 꾸미기, 밝혀진 승화의 비밀 극 만들기, 13일차는 동시 극화하기(황소개구리),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 꾸미기, 부모님의 소중한 극 만들기, 14일차는 동화 즉흥극 꾸미기, 집에서 깨어난 아침 상황 꾸미기, 집에서 깨어난 아침 상황 극 만들기, 15일차는 인터뷰 놀이,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 꾸미기, 밝은 아침 극 만들기 등이다.

심 교사의 교육연극은 아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 유감 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데 매력이 있다. 어른들의 재단없이 스스로 창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된다.

심 교사는 지난 16년간의 교직생활동안 실력을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 군포교육장, 포천교육장, 포천문화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등을 13차례나 수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5 포천 중·종교 총동문회 한마음 대축제



Re-coming Festival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모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여 주고 계신 자랑스런 동문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번 총동문회에서는 동문들이 1년에 한번은 모교를 방문하여 선·후배 동문 모두가 함께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총동문 한마음 대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잊혀져가는 추억도 더듬어 보시고, 정다운 동문과의 뜻깊은 우정도 나누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 부탁드립니다.



2005년 10월 30일(일) 오전 9시부터



포천종합고등학교 교정

포천 중·종교 총동문회 회장 조성인 올림
포천 중·종교 장학회 이사장 조성인 올림